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갈 2:20)

발행처: 새한뉴스그룹 충청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만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8 후반기 교구영성훈련

기다리는 영혼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15일부터 매주 화·목, 교회 주제성구와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지난 9일 본당에서 실시된 구역영성훈련.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1교구를 시작으로 '98 후반기 교구영성훈련이 제개된다. 후반기 영성훈련은 전반기에 실시된 기도원 봉사활동 대신 말씀과 기도시간을 늘려 영적 갱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말씀시간은 교회의 주제성구인 시편 18편 1절과 빌립보서 1장 12절을 중심으로 하고, 주제강의와 기도시간은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와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들을 중심으로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런 기적에서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일상성'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진실한 경험이다. 따라서 각 교구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으시는 영적 갱신의 은총과 진정한 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교구와 구역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어린이이

같은 순종을 통해 거룩과 순결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는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

한편 지난 9월 5일 주 1부와 2부예배 후에는 각각 구역장 및 부지역장, 그리고 남성구역장들을 위한 영성훈련이 있었다. 이 구역장 영성훈련을 통해서 김성관 위임목사는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묵묵한 순종이 구역장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찬양예배 기독교 TV에 방영 예정

9월 21(월), 22(화), 24(목) 3회에 걸쳐

지난 주 오후 찬양예배에 있었던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찬양예배가 기독교 TV를 통해 3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방영일자 및 시간은 아래와 같다. 9월 21일(월) 09:30-10:30, 22일(화) 19:30-20:30, 24일(목) 21:20-22:20.

아멘찬양대 반주자 모집

아멘찬양대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계를 제출한 김남옥 반주자의 후임으로 반주자를 모집한다. 오르면 반주 경력 4년 이상인 분 중에서 아멘찬양대 반주자가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9월 20일(주일)까지 찬양위원회(구내전화 259번)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예배 지난 주일(9월 6일) 찬양예배에서는 할렐루야찬양대에서 준비한 감사 찬양의 시간이 있었다. 찬양 시간을 통해서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외에 여덟 곡이 수준 높은 기량으로 은혜롭게 연주되었다.

'98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들로 자라 주길

오늘 찬양예배시에 수여식 · 지금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장학생 전원은 '확인서' 제출해야

'98년도 후반기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어 오늘 찬양예배시에 수여식을 가진다. 장학위원회는 금번 수여식에서 전액장학생 8명 및 일반장학생 170명에게 1억 4천 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번 일반장학생 중에는 전반기 탈락자 9명과 후반기 추가자 27명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전반기 장학금 수혜자는 162명에 장학금은 1억 3천 2백 7십만원이었다. 따라서 1998년도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총 2억 7천 7백 5십여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학위원회는 전반기에 실시되었던 일반 장학생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련회, 서류 및 면접, 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20명의 전액장학생 후보자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공동체훈련(등산과 전도, 단기진고 등)을 통한 관찰평가, 신구약 성경 1독 및 기도회 등을 통한 신앙평가, 성경 논술과 영어 면접 등을 통한 실력평가, 마지막으로 김성관 위임목사가 실시하는 최종면접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8명(남4, 여4)의 전액 장학생들이 선발된 것이다. 장학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정한 훈련계획에 따라 이들을 훈련시킨으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방침이며,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구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장학위원회는 간혹 장학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지급된 장학금이 오직 학자금으로만 쓰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장학금을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차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도록 규정하였다(확인서는 교육국에 비치). 이에 따라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수령한 장학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장학금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장학위원회는 유학 및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들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준한 자를 선발키로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 찬양예배시에 진행되며, 지급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

령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번 선발된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전액장학생

김정영 권영인 김범진 오용진 손석대
이성혜 정은주 최미영

일반장학생

대학원생

김영영 김일송 박명숙 성명연 이미경
이상열 이정철 이광주 최경락 홍윤희
강천구 박근호 박장식 손정미 이종태

대학생

강신애	강진수	구자민	김광석	김민준
김소정	김승남	김수연	김승현	김은혜
김정아	김지이	김지혜	김득중	김현정
남석우	남지민	박유영	박유희	박은아
박은영	박경수	박경은	박지선	박지수
손은영	송연자	송정목	신민주	신지수
신창훈	신영진	안명혜	안의정	양한울
염소연	오미진	윤철중	윤혜신	윤희
이민욱	이병주	이보형	이승혜	이영선
이재욱	이주희	이지수	이혜정	이혜남
이혜은	장대선	장상원	정우정	정은은
최은정	최진애	한유리	한정근	한정숙
한준혁	황성진	황인원	황창영	이태훈
최인숙	최형원	홍치순	김경주	김도엽
유혜영	박혜민	신준성	안지영	유상협
김태민	윤지원	이옥주	이지우	이진수
이평희	정경숙	조수진	최춘호	이혜숙
이진섭	김미연	채경환	이시희	도모하

고등학생

강석진	장지영	구본창	김수정	김시화
김아란	김예리	김태영	류제근	양만석
오빛나	오대석	우지혜	이광민	이영환
이태현	임우영	장혜영	지은경	주하얀
허민성	홍사라	김성복	김유송	김희정
박현진	우성민	임현수	조성환	

중학생

강승연	김지영	김한나	윤혜정	이동주
전희정	김문철	김슬아	배상근	유민석
윤지현	이대호	한영아	김선영	나지원
염혜실	유종훈	이소윤	진세환	최웅
장분희	김기현	김성애	김정식	김정민
김지옥	김현호	김희숙	민윤하	박훈
변은정	서영은	유현정	이동주	이준
이태호	함용복			



김창인 목사

유다가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 것에 대한 보응 (이사야 28:7-13)

“평안한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고집하면 불쌍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듣고 실천하기를 힘써서 이미 받은 복을 길이 누리고 위대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문은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예언을 멸시하고 조롱한 유다의 죄와 그로 인하여 당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에 종을 보내어 외치게 하십니다

(1) 유다 백성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였습니까
①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의 이상을 그릇 해석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식을 수행할 때 만취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법(레 10:9; 겔 44:21)을 어기고 예언 사역을 할 때에도 만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죄를 재판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며 모범이 되어야 할 재판관들이 늘상 술에 취해 있어서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할 재판관들이 실수에 실한단 거두어야 할 증거거림에 되지 않았습니까.

(2) 백성이 따라갈 지도자가 없으니 그들도 함께 취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열굴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7절)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상에는 온통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찼습니다.

(3) 곤비한 심령이 안식을 거부하였습니까. “…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니 너희 상례함이나 …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의 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곤비하게도 멸망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4:6).

(2) 유다가 이렇게 한심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형편없이 썩은 백성을 전부 멸망시키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하나님은 사랑

이신지라 그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유다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무서워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 죽육과 죄성을 작오하고 유다에 가서 교훈과 경계를 하였습니까.

2. 유다는 하나님의 종과 그의 예언을 멸시하였습니다

(1)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유지하다고 하였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것 멸여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9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듣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 비우고 폄박하였습니다.

(2)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끝없는 전소리라고 멸시하였습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10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을 귀찮은 방해꾼이요 그들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전소리라고 편견을 주었습니다.

(3)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체제도 없고 언절도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였습니까

“… 여기서도 조금 거기서도 조금 하느니라 하도라”(10절)

유다이인들도 주의 종들을 짧은 단어들이나 반복하여 더듬거리는 말장난들이라고 냉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옷 사치 왕의 사촌동생으로 인류 역사상 나타난 문호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꼽을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문호들이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읽는 것은 문장에 걸리지 않는 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사야의 글을 읽어 보면 구구절절이 깊고 오묘한 진리가 포함되어, 이사야는 철저한 사상가이며 태산은 움직여도 그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는 곧은 인격자입니다. 또 욕심을 모르는 애국자요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진실한 성도이며 비효율 자가 없는 훌륭한 웅변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어린애나 가르치라”고 하였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자기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하나

님의 종인 이사야에게 “어린애나 가르치라”고 비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만과 허위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서 떠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육신보다 영혼이 귀한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3. 유다가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1) 앗수르 사람들의 방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11절) 하나님의 종을 유다에 보내어 아무리 가르지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앗수르 사람들을 보내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굴빛이 다르고 알아 듣지도 못하는 그들의 말을 실컷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2) 조롱하던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거기서도 조금 하사 …”(13절)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듣지 않고 단조롭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폄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앗수르의 단조롭고 억압한 전소리를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말을 해야 하였으니 사들 몰리라고 여겨서 한 마디 배운 것, 거기서 한 마디 들은 것을 가지고 “내 말 안 들었어?” 하며 때리거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사 18:26). 유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게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3) 앗수르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 그들이 가로되 너도 넘겨져 부러지며 길거리 잡히게 하시리라”(13절)

“너희가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끝까지 멸시하고 듣지 않았으니가 이제는 열굴빛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께 서 정갈 모를 말을 듣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랑도, 인정도, 이해도 없고 다만 강포와 관인뿐이어서 너희가

그들에게 끌려 가서 매를 맞아 허리가 부러지고 거꾸러져서 짐승처럼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다” 하시며 전쟁으로 멸망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지 10년이 못 되어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엔 듣지 않고 주의 종의 눈물이런 음성을 배반하다가 마침내 열굴빛이 다른 앗수르 사람들에게 어지없이 망하여 예브고 사치하던 여자들은 다 죽을 당하며 끌려 갔고 튼튼하던 남자들은 전쟁에서 죽었고 남은 백성은 총으로 잡혀 갔고 어린아들과 늙은이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그 피는 강을 이루었고, 산천초목은 무서운 전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받은 복을 길이 누리고, 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환난날에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던데 얼마나 좋았겠나” 하며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평안한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고집하면 불쌍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던 원수에게 밟히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저와 여러분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듣고 실천하기를 힘써서 이미 받은 복을 길이 누리고 위대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무슨 어려움 일이 올지 모르지만 영혼이 육신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영혼을 팔아 버리고 안되고, 육신이 살라고 영혼이 약에게 굴복하여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미를 들 수 있지 모르지만 잘 살 것도 배 년 못 가서 끝내고, 영혼은 잘 살면 영원히 잘 살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결코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



김성관 목사

그가 알게 하라 (출애굽기 4:22-2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훈련시키셨으며 원수로부터 보호하셨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직 한 길 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들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모든 장자들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바로의 적은 엄청난 재앙을 불렀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의 강력한 마음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사람의 악행을 통해 자기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끝내는 그 고통으로 인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그것을 신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단이 날뛰고 인간이 그에 동조하여 죄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사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다육 기쁜 소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사상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므로 우리가 좀 더 확신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장자로 일컫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보증하여 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열려진 영안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질 것입니다.

보냄받음과 섬김

본문은 두 가지의 놀라운 주제를 내포합니다. 여호와와 아들은 보냄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부르셨으니 너무나 다정스럽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의 장자에게 아들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놀라운 공의를 보이십니다. 보냄받음과 섬김이라는 두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대사의 임무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와 마찬가지로 거절당하며 죽음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겸손

본문의 두 주제는 다시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사백년 이상이나 노예생활을 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을 문둥병자보다 조금 낫게 여겼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아들, 나의 장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음을 얻게 하셨고 그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므로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요일 3:1).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에게게도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자로써 오매 참으시는 사랑이 적잖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하고 그분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우리는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장래의 관계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장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큰 가치가 없는 극히 작은 자로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적들을 깨닫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

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하고 유익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세주로 모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긴 자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 3:26).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요 그분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 그분께 영광과 칭찬을 드리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랍고 거룩한 권능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이제 두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갖게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벌하시므로 훈련시키셨으며 그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셨고 무엇보다도 풍요롭게 하심으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직 한 길 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그분 두어 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의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그를 대하실 것입니다. 하

남의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벌하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음은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함이며 가능하다면 그들과 평화를 유지함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타는 쏜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여권을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좁고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가 때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경멸이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고난을 겪거나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욱 더 담대할 수 있으며 결국은 의가 승리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알릴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그분의 장자임을 ‘내가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에브라함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접하기를 한 번 그분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됨을 세상에 전하고 그분의 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요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합시다! 아멘. ■

섬김

정안 나(대학부 2학년)

‘조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선배님과 이를 위해 훈련 받고 있는 우리 동기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건 정말 귀한 일이다.

‘직분자들은 억지로 행하거나 사사로움 이해관계에 따라 봉사해서’는 결코 안되며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심정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에서가 아닌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모양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의 말씀이다. 새가족부에서 한 달 동안 한 직제를 섬기게 된 나에게 이 말씀이 깊어 다가왔다. 난 조장을 맡은 조원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떻게 준비하든지 이번에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일주일 동안 나에게 맡겨진 직제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조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직제와는 한 달 동안의 만남이 있을 때지만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 직제가 우리 대학부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나아가 대학부라는 귀한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아서 귀한 믿음의 거목으로 크기를 기대한다.

새가족부에 있다보니 우리 팀과 조가 참 소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팀과 조, 그리고 섬기는 팀장과 조장, 그리고 팀원과 조원들

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그분 뜻대로 겸손함으로 나부터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일에 나와서 교제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GBS를 인도하시는 조

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조장이 흔들리면 조원들도 흔들려진다.

우리, 우리의 신앙의 귀한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님들은 조장을 위해, 그리고 같은 배를 탄 귀한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GBS를 기뻐하며 주일에 와보라. 정말 풍성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을 믿는다.



성경묵독

사무엘상은 재미있다

강 석 진(대학부 7학년)

사무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고등부 때 지도 교사님의 말씀. 바로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점점 온갖 죄를 짓는 흠니와 비느하스의 집 안에서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었기에 쓰임받았다는 말씀. 멋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네요.

1:13 -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언젠가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을 했었고, 하지만 기도의 모습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들으셨지요. 기도는 소리 소리 질러벌의 문제보다 마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7 -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고 소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고도 하고 소고도 하시느니라” 한나의 노래. IMF시대의 우리들도 한 번 한나의 믿음을 되새기 봐야 하지 않을까요?

3:1 -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함의 기뻐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무서운 일이지.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서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엘리만 믿이나 외로움과 영적 전투의 힘겨움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운동력이 있나?

8:5 -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된다. 내 책을 전도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말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에게 “교회다니면 뭐가 좋은데?”라고 물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아.”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믿음이 라는 단어에 대한 확실한 인식조차 없었기에 그 대답이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친구의 다음 말에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모르는 교회 다니셨는데 얼마 전에 교포사 고로 돌아갔어. 교회다니면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냐?” 친구의 말에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수년이 지나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가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판지라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걸까.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 나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흔히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만 한다. 나는 내 앞에 고난이 있을 때 회개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를 원망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져 가려고

했었다. 용기가 나오는 용 역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다. 용의 친구들은 용이 죄를 지었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용에게 회개를 요구한다. 하지만 성경은 용의 고난이 단순히 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를 보여 준다. 용기는 하나님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세상이 살아간다는 것을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인과응보적인 단순한 생각일 뿐이다. 분명한 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종말에 이르러 주어진 것이신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또한 훗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조금이라도 버거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금세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낸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 일단 기도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식교육원 실패, 교회도 종종 그런 모습이 보이지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자. 보니까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지, 아무튼 더디거나 오는 “왕을 주소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결코 민주주의 다수결

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하십시오?

17:26 - “...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45 - “...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나 나쁜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봅시다.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분노다. 늘 사랑하려고 늘 분노를 품지 말라고, 늘 화목하란 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담함까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단지가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분노. 우리의 안일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부끄러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지? 너무 부끄러워 당하기만 하는 우리가 아닌지. 잘못에 대한 책임감도.

25:29 -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께 여호와와 함께 내 마음에 새겼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내 목숨에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생명씨개’라는 단어가 맘에 들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현명함은 정말 부러워요. 나중의 제 아내가 이비가일같이 남편을 살리고 현명한 아내일지.

25:33 - “오늘날 내 피를 흘릴 것과 전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무엘은 그렇게 관대하단다. 결국 기쁨부여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지요.

환경보다 중요한 네 영적 중심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은 사랑

이 아담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정말 매 두수까지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 심판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혼란기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8:7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선 바로 보시고 계시지. 이 말씀을 읽으니 참 슬픔이나.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배지셨습니. 우린 종종 지혜로운 배정에 대해서 너무나 어릴 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배정에 대해서 너무나 담대(7월)합니다. 그런데 또 이해 못할 것이 하나님께선들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





영동교도소에서 온 편지

저와 제 처와 자식들이 함께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다면

권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의 육신과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언제나 저의 곁에서 누님 같은 분위기를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모두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절대로 낡설지가 않습니다. 저의 마음 속에는 늘 한 가족 같은 마음 뿐이지요. 그래서인지 한 달에 한 번씩 씩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이곳 생활에 마음에 용기가 되는 지 모릅니다.

권사님 주간후원에 살린 은의 교포의 편지를 읽고 마음 속에 깊은 감동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육신을 잡아'

사회에 나가면 ...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 사회에선 아간업소에서 노래, 이곳에선 찬양대원으로 변화

주세요. 어떠한 유혹이 제 안에 있다 하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잡아 주소서' 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권사님 이제 사회에 나가면 '기도원' 다니다고 아버지의 성전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배운 기술을 발휘하여 언제나 아버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사회가 갑이 납니다. 저의 마음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어 자그마한 유혹에 지우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권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정말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기도와 찬양을 하며 주님 곁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가정도 주님께서 책임지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소원은 저의 가족 모두가 나란히 교회에 나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권사님 죄요, 아비에게 성가대 반으로 옮겨가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아간업소 부대에서 술취한 사람들을 위해 가요를 부르며 방탕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제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아버지께 알리고 제 찬양이 아버지 하늘나라에 생길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렵니다. 권사님 8월달에는 제가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지금 권사님에게 편지 쓰는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같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권사님 저의 소망은 제 처와 자식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든 전도사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저의 가정에 모셔 저의 집이 떠나가게 찬송부르며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나쁜 것은 아예 다 잊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늘 감사드리며 이만 편을 놓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편지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제자이자 B 권사님께)

계속된 지루한 장마 속에 8월 20일 오후 4시 오래간만에 보는 파란 하늘과 찬란한 햇빛이 경찰청지도원들의 어두운 마음을 활짝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서울지방 경찰청 제3기동대가 우리가 향하는 사역지였습니다.

정각 7시에 시작된 제3기동대 특별집회에 참석한 전·외경 100명은 장로님의 기도와 여성중앙단의 찬양,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앞에서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집사님 51명 중에는 대장, 행정과장, 행정계장 외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 놓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였습니다. "전·외경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어두운 그림자는 없고 밝고 밝은 빛만을 볼 수 있

고 예수님을 등지고 멀어지면 어두운 그림자는 길게 앞서가며 어둠으로 빠져 가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름받아 많은 업무에 충성하시고 어두워 가는 이 나라, 어려운 경제, 거꾸로 가는 이 사회의 안정을 찾으려 치환이 없는 내 고장에 밝게 비추는 길잡이 동대가 되십시오. 전·외경 여러분이 하늘만 보고 위에 것을 추구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말씀 듣고 지상 명령 따라 전국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지도 회원은 176명입니다. 98년 연말까지 회원 300명을 목표로 기도 중에 있소오니 충현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은 21세기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치환을 담당하시는 15만 경찰, 전경, 의경의 복음 확장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소년원 사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실감

조봉석(집사, 4교구)

금년에도 자원봉사자는 부족했다. 와서 좀 도와 달라는 김철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가서 도와드릴 일이 있었는가? 전도사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먼저 믿는다. 집사님 같이 갑시다" 였다.

어느덧 춘천에 도착. 소년원에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에 짐을 풀고 개회예배를 드리러 하니 원생들은 자리를 잡고 찬양하고 있었다. 이슬람 목사님께서 개회예배를 통해 "작게요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세리 삭개오의 가정에도 구원이 임한 것이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곳에 있는 원생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있는 말씀으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반편성도 마쳤다. 식사 후 교사모임을 갖고 성기는 자세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정리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의 열정은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심어 줄 것은 오직 복음이다. 열정 전경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원생 150명 중에는 날카로운 눈초리도 보였고 강박한 마음이 차 있는 모습도 보였다. 둘째날, 셋째날까지는 마음 문을 잘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부르짖으며 전도사님도 애복하시며 교사와 함께 합심기도를 했고 저녁 집회때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모두 자신들의 온전하기를 회개기도를 드려서 속속해 돌아와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 육신의 몸은 맘에 찢었다. 이곳이 정말 영혼 살리는 열정 전경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둘째날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자가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신의 대답으로 믿겠다는 구원의 확신자가 100여명이 되었고 세례받을 자는 70여명이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오늘은 도중 각 처소로 아취음의 인사를 나누고 교회까지 모이면서 생각했다. 소외되고 있음에 갇힌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알아 주지 않으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외지할 곳 없는 생명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주께로 오게 해야겠다고.



지혜들 소식

유아부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았어요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의 4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5년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만큼 성장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날의 감격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만큼 피폐해진 것은 아닐까 반성도 해봅니다. 유아부는 지난 주일 옛날 애들에게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막과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교회를 새우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임미선 통신원)

유년부

순수한 영혼의 우렁찬 찬양



이번 주부터는 유년부의 찬양대와 전도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1부 찬양대예요. 1부 찬양대의 과장님은 유년부 5과 2학년 교사와 크라마하대원으로 봉사하시는 이용순 선생님이세요. 지휘자 선생님은 아멘찬양대 솔로리스트와 실로암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김명선 선생님이시구요. 반주자 선생님은 청년중앙단 반

주와 벨렐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는 한경숙 선생님이세요. 1부 찬양대는 찬송가들을 외워서 영적인 순수함으로 우렁차게 찬양을 드리고요. 또한 바이올린 합주단과 독창, 중창 등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1부 찬양대는 언제나 지휘, 반주 선생님과 찬양대원이 영적으로 하지 않는 찬양을 부르고자 열심을 다한답니다. (정지호 통신원)

중등2부

나눔있이 속삭여요

지난 여름은 우리 모두를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게 하였지요. 오락가락 하던 장마가 끝이 났나 싶을 때 지리산 출가를 시작으로 전국구 구석구석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야 했지요. 그러나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9월의 하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재촉합니다. 친구를 잃은 그 마음까지도 추스리고 이 달빛까지 끝내야 하는 2차 심방과 잃은 양 찾기와 전도, 또 시와 찬양의 밤도 어디 한번 새롭게 좀 색다르게 시작해보라고, 연애 행사도 슬픈으로 하지 말고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슴으로 끌어안고 해보라고 속삭입니다. (나성애 통신원)

고등부

충동된 전도주일 위한 교사기도회

고등부의 어린 양들을 위한 교사 기도회가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고등부의 부흥과 신앙 성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기도회 모임이 하나님께 소임하는 천국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고등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은화 통신원)

늦었지만

꼭 알려야 할 보고서

- 시랑부 제10회 여름성경학교 -

이 주 현(집사, 시랑부 교사, 1교구)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제로 여름성경학교가 열렸다. 시랑부 1교구로 갈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가사보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웠다. 벌써 3년이 흘렀다.

시랑부 친구들의 믿음을 볼 때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는지 그들을 행

학생이 같이 성경을 했다. 우리 반(반사 1과)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 성경을 하게 됐다. 성경을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로 등과 기를 준비하여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겼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또한 점심을 먹고 전도지와 선물물

없어진 두 학생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때까지 역성역에서 전전하고 있었다

동과 얼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주일이 지나면 또 다시 주일만 기다리며 기쁨으로 교회에 온다.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부둥켜안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이들이 예수님, 천국도 알 수 없었을텐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가게 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금번에 제10회 성경학교가 열렸다. 그런데 많은 순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 각반 교사님과

들고 전도를 나갔다. 우리 학생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며 전도할 때 정말 마음이 뿌듯했다. 전도를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반 두 학생이 없어졌다. 있는 날에 찾아다니는데 역성 지하철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번 교회에 전도하지 못한 내 자신이 더없이 부끄러울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 시랑부 친구들의 믿음은 정말로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성도님들께 우리 사랑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탐방 - 가브리엘찬양대

드높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고백으로 부르는 찬양



▲ 지난 8월에 있었던 수련회.

우리는 때로 파도 소리와 새 소리, 그리고 여름날의 소박이 소리에 매혹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인간에게서 찾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면 매주 일 1부예배 후에 분당 지하의 가브리엘 찬양대의 연습실로 오면 된다.

그곳에 가면 여러이 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곡소리를 들려주고 비침을 흘리고 있는 140여명의 가브리엘찬양대원들을 만날 수 있다. 주일날 1부예배 때의 준비물이 잘 다듬어진 모습도 아름답지만 연습을 하는 모습은 더욱 은혜로웠다. 공교한 한 음을 위해 온몸의 힘을 바치는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대원들의 연습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감동으로 두팔로 흔이 떨려움을 느낀다. 가브리엘찬양대는 1부예배를 수송들

고 있는데 김의철 장로님을 대장으로 조신숙 집사님을 지휘를, 백금숙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요 140여명의 대원들이 섬기고 있다. 77년 창단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22년을 한결같이 주님께 영광돌리는 일에 신명을 바쳐왔다. 연령별로 20대에 이어서 60대에 이르는 찬양대 구성원의 다양한 분포는 가브리엘찬양대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 부부를 비롯한 온 가족이 모두 찬양대에 속한 경우가 많아 이 부서의 분위기는 마치 대가족이 조화롭게 모여 사는 것만큼 따뜻하고 화목하다.

특별히 가브리엘 구성원들의 특징은 이들이 매우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1부 예배를 수송들기 위해서 이들은 늦어도 집에서 새벽 5시에는 출발해야 한다. 연대인 중 일주일에 한번쯤 달콤한 잠

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들은 새벽을 좋아하신 예수님을 닮아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주일 성수를 위해 성전의 문턱을 밟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부서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의 봉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 시간의 1부 찬양대를 선택했다 하니 게으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함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가브리엘찬양대는 찬양과 말씀의 균형을 위해 성경읽기를 강조한다. 찬양이란 세상노래와 달리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고백이므로 성경을 읽어야만 제대로 찬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 대원이 성경읽기에 참여한다. 1년에

저를 읽는다는 건해. 이런 맥락에서 가브리엘찬양대는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한다.

또한 가브리엘찬양대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찬양대의 신념들이 지켜 온 전통이기도 하다.

이번 여름에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양수리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주제는 '새노래로 찬송하며 공교회 연주하자' (시 33:3)이다. 영성훈련과 찬송기도와 친교, 그리고 공교회 찬송을 위한 공부로 백백한 일정을 보냈다. 이들은 수준 높은 찬송을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 주었다.

만약 누군가 1부예배에서 혼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환영한다. 가브리엘찬양대에 들어오는 것은 온전한 봉사를 위한 첫 시작으로 그들에게는 영혼을 잃는 부서에 서든지 낙하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온전한 찬양 성수에 뜻이 있는 사람을 기도한다.

'합창의 매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데가 들어감으로써 너무나 좋은 찬양을 이룬다는 것이다'라는 지휘자의 말씀에 충분히 감동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어두운 새벽녘, 주님을 뵈려는 '너무나 좋은 찬양'을 위해 부지런한 발걸음을 옮기는 가브리엘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김/정원희 기자)

새벽을 좋아하신 예수님을 닮은

부지런한 발걸음들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파수꾼들

10독 이상을 하는 대원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대원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한편 김의철 장로님은 사울이 악귀를 다룰 때,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여 악귀를 퇴치시킨 것을 예로 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독교 음악이 국민 음악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역설한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교 회 소 식

●알림

1. 제직회 /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 춘천교구신학교 학급 수여식 / 오늘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3. 9월3주 특강 / 27일(주일) 12:30-13:30 교육관 307호에서 있습니다.
주제: 믿음과 감사 / 강사: 이종대 목사

●도입

1. 장로 화요세백기도회 / 15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세백기도회 및 성경공부 / 14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요우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리움
4. 전도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신대관 405호
5.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6. 실업인전도회 월례회 / 15일(화) 18:00, 캄벨홀
7. 실업인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17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8. 경찰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캄벨홀
9. 전교회 제2차 월례회 / 16일(수) 1부예배 후, 사랑방실

●남녀노소

1. 바 올 1 / 19일(토) 19:00, 제주마바
2. 바 올 2 / 19일(토) 18:00, 한가위식당(555-8875)
3. 바 올 5 / 19일(토) 18:00, 노아식당(556-8459)
4. 바 올 6 / 오늘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5. 바 올10 / 20일(다음 주일)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6. 바 올14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1호
7. 베드로 8 / 19일(토) 18:30, 임파택 집사(446-8159)
8. 경찰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도봉산식당(011-288-1566)
9. 베드로12 / 20일(다음 주일) 15:00, 교육관 409호
10. 베드로14 / 19일(토) 19:00, 마순구 집사택(896-3568)
11. 베드로16 / 19일(토) 18:00, 신동아학원(안양)
12. 베드로17 / 19일(토) 19:00, 문장 삼성식당(0342-708-4665)
13. 오 한 5 / 19일(토) 19:00, 영봉산 집사택(575-7268)
14. 오 한 6 / 20일(다음 주일) 12:00-13:30, 캄벨홀
15. 한 나 1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6. 한 나 2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7. 한 나 4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8. 한 나 5 / 오늘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19. 한 나 6 / 오늘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20. 한 나 7 / 14일(월) 10:30, 올림림픽관 팔각정
21. 한 나 8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301호
22. 한 나 9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4호
23. 한 나10 / 오늘 구교모임 후, 본당 2층 주님예배
24. 한 나11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5. 한 나12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12호
26. 한 나14 / 오늘 구교모임 후, 만나홀
27. 한 나16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8. 한 나17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307호
29. 예스터 6 / 20일(다음 주일)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30. 예스터14 / 오늘 구교모임 후, 본당 116호
31. 루디아 1 / 14일(월) 10:30, 사랑방실
32. 루디아 4 / 17일(목) 11:00, 영아부실
33. 루디아 8 / 20일(다음 주일) 15:00, 교육관 305호
34. 루디아 9 / 15일(화) 11:00, 성로면목
35. 루디아13 / 17일(목) 11:00, 성향록 집사택
36. 루디아15 / 오늘 구교모임 후, 베디나홀
37. 마리아 1 / 15일(화) 10:30, 사랑방실
38. 마리아 2 / 15일(화) 10:30, 최병희 집사(514-7595)
39. 마리아10 / 15일(화) 10:30, 장세복 집사(744-9064)
40. 마리아13 / 20일(다음 주일) 11부예배 후, 캄벨홀
41. 마리아14 / 15일(화) 10:00, 전인선 집사택(646-7634)

●별견

1. 오제철군(오정현 장로, 이길은 권사의 아들, 제1교구)과 김지영(김장간 집사, 이희구 집사의 딸, 제6교구) / 18일(금) 13:00 갈릴리움
2. 김우준군(김향홍 집사, 제5교구)과 김지영(김향원 씨, 박혜순 씨의 딸, 제9교구) / 19일(토) 13:00 갈릴리움
3. 민광근군(민태현 씨, 조도식 씨의 아들, 제9교구)과 정연희(장두현 장서도, 이여옥 성도의 딸, 제9교구) / 19일(토) 14:00 복지관

●별세

1. 유승호 성도(김주호 성도 장인, 유정희 권할 부친, 제3교구 개나리구역) / 6일 별세, 8일 장례
2. 이종만 성도(김을순 성도 남편, 이연호 집사 부친, 흥원회 집사 서부, 제14교구 요류구역) / 6일 별세, 8일 장례
3. 신순전 성도(제1교구 순환구역) / 10일 별세, 11일 장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1466	윤정숙	1	베드로	유옥자(8)	1481	신동숙	6	소망부	김정순(6)	1496	정미자	19	청년2부	문영희(6)
1467	한용원	1	바울	심인숙(1)	1482	이상조	6	소망부	김정순(6)	1497	구인정	19	대학부	
1468	한 숙	1	대학부	심인숙(1)	1483	김혜영	19	청년1부		1498	김효숙	19	대학부	김순희(9)
1469	한광희	1	대학부	심인숙(1)	1484	정규열	8	청년2부		1499	김정영	19	대학부	김순희(9)
1470	황희정	19	청년1부		1485	장규익	8	청년2부		1500	이성경	19	청년1부	
1471	강혜주	1	청년2부		1486	강진일	12	청년1부	이상세(11)	1501	황성준	19	청년1부	
1472	김희정	1	소망부		1487	이동광	12	청년1부		1502	백창민	17	청년1부	이진구(17)
1473	김철오	1	바울		1488	이용태	16	베드로	김영재(16)	1503	유미라	12	대학부	
1474	김영만	1	청년부		1489	권영순	16	루디아	김영재(16)	1504	유규찬	19	예배다부	
1475	김영미	1	고등부		1490	강금자	17	예스터		1505	정국환	19	예배다부	
1476	김동경	1	청년2부		1491	임장성	17	청년2부	박호지(2)	1506	한 철	19	청년부	
1477	김종배	2	베드로	오정현(1)	1492	임인재	17	바울	박호지(2)	1507	유희희	19	대학부	
1478	정영화	1	한나		1493	하세물	17	청년2부	박호지(2)	1508	박승철	1	소망부	
1479	윤순애	2	예스터	서경희(2)	1494	남소을	16	청년2부	주민선(3)					
1480	박경재	6	소망부		1495	안현정	19	청년2부	문영숙(3)					

※춘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음

고난 속에서 만나는 사람

한인 중 힘센 염력 속에서 더욱 친근해 보이게 된 새가족

임 동 개(집사, 1교구, 새가족부 교사)

어느날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병상세례를 받은 분의 딸이 내일인데, 아무래도 참여할 교인이 적을 것 같다는 것이다. 몇 분에게 연락을 하여 다음날 아침에 영동 세례반 스승인 영안실에 도착하여 영정을 보니 바울전도회에 속하시는 남자분이었다. 딸인데도 꽤 안치소를 떠나 영구자에 옮겨져 때 지 길인양이 오열했다. 마음이 숙연했다. 며칠 후 새가족부에서 소천하신 그분의 부인을 만났다. 병상에 계셨던 남편을 위해 해야 할 수 없는 기도는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되었으리라. 새가족부 집

회시간에 저쪽편에 앉아 계신 부인은 인상이 좋으셔서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편안했다. 그 동안의 학습, 수료, 세례반의 교육이 끝난 후 그분은 마침내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고 전신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딸인예배때 동행했던 집사님들의 협력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지나친 자만일까. 그 협력으로 인해 지금도 그 성도들을 만나며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의 반가운 인사를 나누게 된다.

동서노노제54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 제출서류 :
 - ① 목사고시청원(강도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②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 ③ 전도사 고시 청원
 -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춘천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
 - ⑤ 신학 계속 추진 청원(춘천대학 및 춘천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 1998년 9월 18일(금)까지

• 접수 및 문의 : 교회 사무국 총무과(☎ 563-2339)

춘천 증보의 창

- ① 장강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와 권능과 옥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춘천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③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찬양하며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날게 하소서.
-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되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춘천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성령 충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돌이아 온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 ⑦ 각종 제인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⑧ 춘천교구신학교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공부에 힘쓰게 하셔서 천국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소서.

■ 원로목사

■ 장강인

■ 위임목사

■ 김성관

■ 부목사

■ 이종성

■ 김희수

■ 김필수

■ 김현민

■ 김현민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 김병태

9월 20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청년1부 동창단

(찬양곡목)

- 평화의 세상
- 시편 23편
- 거룩하신 주
- 내게 사랑을 향하여 눈을 돌리

◆ 3·4부예배

클라리넷 오케스트라

(이벤트담당 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오 신실하신 주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내 영혼의 구주이 되소서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조준환 목사

